

파종회장단, 평창공과 학림공 공적비 건립 만장일치 추진

안동권씨대종회(회장 권해옥) 주최 “평창공(平昌公)과 학림공(鶴林公) 공적비(功績碑) 건립계획”에 따른 전국파종회장단 회의가 3월 6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대종회 안동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권해옥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의 수석부회장, 권순협 상임부회장(별장공파 회장), 권오창 종파 회장, 권영건 부호장공파 회장, 권기호 북아공파 회장, 권오수 동정공파 회장, 권오진 좌윤공파회장, 권병은 부정공파 회장, 권영탁 증윤공파 회장, 권인택 정조공파 회장 겸 전국 파종회장단협의회 회장, 권태강 검교공파 회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용주 제례위원, 권기원 파종협의회 사무국장, 권행암 안동권씨증보사 편집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해옥 회장

권오의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성원보고, 시조묘소 망배, 소개와 상응례, 경과보고, 심의안건,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권문의 본산 안동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각 파종회장들이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한 후 “그동안 대종회는 제도와 경영을 개선 등을 통한 경비절약 등으로 현재 순탄하고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인택 전국파종회장단협의회회장이 공적비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권 회장은 이어 “지난 1월 11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오는 3월 14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거행되는 제426주년 행주대첩 기념행사 때 구름처럼 모여 총괄 기하사”고 다짐하고 “다가오는 시조 춘향제와 안동권씨 전국장장년체육대회 때 많이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동권문의 숙원사업인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파종회장단의 의견을 듣고 그 뜻을 받들어 결정할 예정이다. 공적비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세울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그 뜻을 받들어 공적비를 건립하려고 한다. 또한 논의가 끝나면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현장으로 직접 가서 공적비가 세워질 장소와 위치까지 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공적비 건립 정소를 둘러본 후 현장답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회장 인사말이 끝나자 권오의 사무부총장은 “지난 2월 20일 대종회 상임위원회에서 독지가가 기증한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평창공, 학림공에 대한 공적비 건립을 만장일치로 추진했으며 이 공적비가 세워지면 선조님들의 업적을 많은 후손들에 전승하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고 100만 권문(權門)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다”고 경과보고를 했다. 평창공(平昌公, 휘(諱) 웅(雍), 추밀공파 17世)께서는 조선 성종(成宗) 때인 명나라 성화(成化: 1465~1487) 연간에 5백여년 가까이 실전(失傳)되어 왔던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묘소(墓所)를 탐사(探査)하여 지금의 묘소 자리에서 지석(誌石)을 발굴하는 등 불후불망의 공을 세웠다.

학림공(鶴林公, 휘(諱) 방(訪), 추밀공파 28世)께서는 1792년(정조 16) 평창공의 외손인 풍산류씨 일족이 시조님의 묘소를 돌보면서 산을 관리해오다가 자기 내 소유라 주장, 송사(訟事)까지 벌여졌으나 학림공은 기발한 기지를 발휘하여 넓은 면적의 산을 되찾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때문에 이 두 분의 공적을 자손만대에 전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파종회장단은 학림공 공적비를 묘소 앞에 세울 것인지 능동재사 주변에

세울 것인지, 비문 작성 시 소유권 소송 문제를 거론할 것인지 여부 문제, 비문을 누가 쓸 것인지, 건립 시기 문제, 제막식 당시 외부인사 초청 여부 문제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다. 파종회장단은 이 모든 논의가 끝나자 평창공과 학림공 공적비 건립문제는 참석자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추진하며 향후 추진 권한은 대종회에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회의를 마친 파종회장들은 종친회관 1층에 있는 ‘양반밥상’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공적비가 세워질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권태사신도비(大師神道碑) 옆 현장으로 이동,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공적비 건립에 따른 날짜, 장소 등 모든 사항을 대종회에 위임, 처리하도록 했다.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능동재사와 최근 보수를 끝낸 추원루를 둘러보고 아울러 남중공 단소까지 둘러보고 헤어졌다.

편집국장 권행암

강릉중친회 제24차 정기총회 성료

강릉중친회(회장 權五烈)는 지난 2월 22일 강릉농협 문화센터에서 족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신년하례를 겸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족친 상호간의 건강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로 시작하였으며 권오열 회장의 내빈소개와 회장 인사말이 있었고, 이 고장 3선국회의원인 권성동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권오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릉에 세기해온 강릉김씨, 강릉최씨 등 명문거족이 많지만 우리 권문도 이곳에 세기할 정도로 명문거족이 되었으며 또한 각 방면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매사에 조심하여 우리 권문이 강릉에서 완전히 명문거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국사로 바쁘신 중에도 매년 꼭 참석하시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권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아공파 증정공계의 권혁목님이 소지파(小支派)임에도 불구하고 21대 종친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제 강릉중친회가 강릉에 거주하는 모든 족친님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친회로 거듭 났음을 축하



하고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된 힘으로 우리 중친회 발전은 물론 강릉 발전에도 기여해 주기를 부탁하였고 아울러 국회의 원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계속된 회의에서 2018년 결산보고와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019년 중점사업으로 강릉지역 권문 기립터 순방행사를 선정하여 권문으로서의 자긍심과 승조의식, 동질감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어서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신임회장단 인사와 권혁목 회장의 취임인사가 있

었다. 취임사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중친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임회장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장 권 혁 목 (북아 36세)
 - 부회장 권 혁 운(추밀 36세)
 - 부회장 권 혁 렬(북아 36세)
 - 부회장 권 혁 우(추밀 36세)
 - 감사 권 현 주(북아 37세)
 - 감사 권 순 상(추밀 37세)
 - 사무국장 권 기 동(북아 37세)
- 정기총회가 끝나고 참석자 모두 식사를 함께하면서 뜻 다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무국장 권기동)

2019년 정조공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정조공파종회(正祖公派宗會: 회장 권인택)는 3월 17일 오전 11시 안동시 중앙로 광석빌딩 4층 파종회 회의실에서 권기만, 권오탁, 권기룡, 고문, 원로회원, 종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권순복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및 파조님에 대한 배례, 상응례,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2018년 수입, 지출 결산보고, 2019년 수입, 지출 예산안 심의, 임원선출,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인택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종회장을 맡은지 6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갈수록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안동권씨 15개 파(派) 가운데 정조공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대단한 공이 컸다”고 자평했다.

그는 권정평(權正平) 선조의 묘지명(墓誌銘) 발견으로 파조 단소 옆에 묘지석을 세우는 등 권문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진주박물관에 있는 묘지명을 국보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동시 옥동에 새 건물을 지어 임대를 주고 또 광석빌딩

의 임대 수입료 등으로 파종회가 활성화 하기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스마일운동을 펴서 서로 만나 웃고 도우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권순복 총무부장은 작년 7월 1일 권인택 회장이 대종회 상임위원으로 추대되는 등 19개 항의 경과보고를 했으며 권순길 감사의 감사보고, 2019년도 금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곧 이어 임원선출에서 권기만 고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 회의에서 권영택씨를 만장일치로 파종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권영택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면에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파조 단소를 관리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고 정조공파 남부지역 파친회 지원, 장학금 지원, 경로잔치, 유적지 답사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아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제7대 권영택 신임 회장은 안동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전 KT&G(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담배인삼공사에서 45여년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신, 구 회장이 다정하게 악수를 하고 있다. 신임회장 권영택(왼쪽) 구회장 권인택(오른쪽)

이 자리에서 부회장은 3개 문중계열에서 추천한 권영규, 권년환, 권기현, 권순종, 권기호 등 5명을, 감사 권경환, 권순길, 이사는 권순택(主孫), 권오길, 권우석, 권순한 등 22명을, 재무 권세규, 유사는 권실건, 권영삼 그리고 신임회장이 권순복을 총무부장으로 지명했다.

총회를 끝낸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안동자반간고등어 한 손씩을 선물로 나눠 주었다. 선물을 받은 참석자들은 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까지술단지술불촌’ 식당에서 소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시조 태사공 춘향제 안내



시조 태사공 춘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족친여러분들의 많은 참제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4월 6일(토요일, 한식) 오전 10시
- ◆대당회 : 2019년 4월 5일(금요일) 오후 6시 추원재
- ◆장 소 : 능동재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 ☎연락처 : 02)2695-2483~4(대종회사무처)

054)854-2256(안동사무처)

2019년 4월 1일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